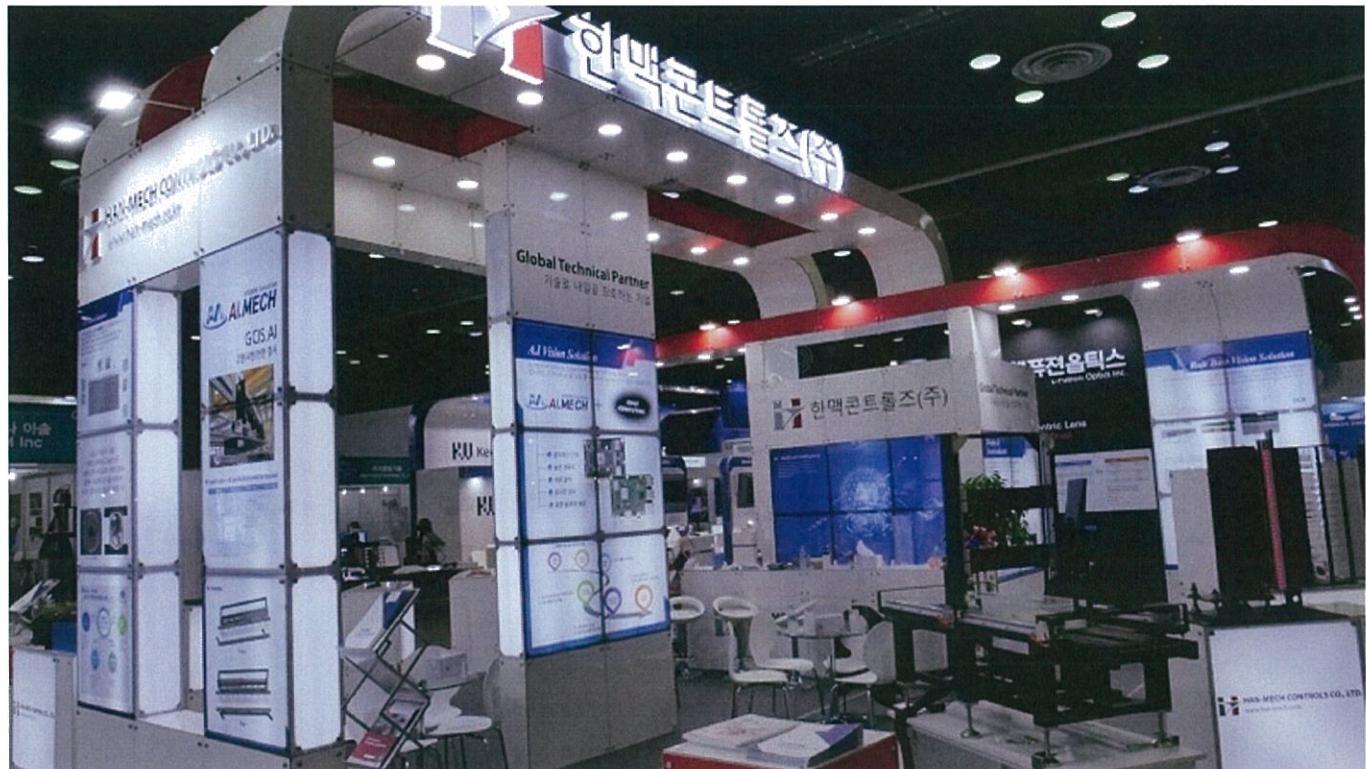


[스마트팩토리+오토메이션월드 2021] 한맥콘트롤즈, 딥러닝 기반 AI 프로그램 AI MECH 주목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등록 2021.09.10 10:19:29

헬로티 김진희 기자 |



▲ 한맥콘트롤즈 부스 전경 (출처: 헬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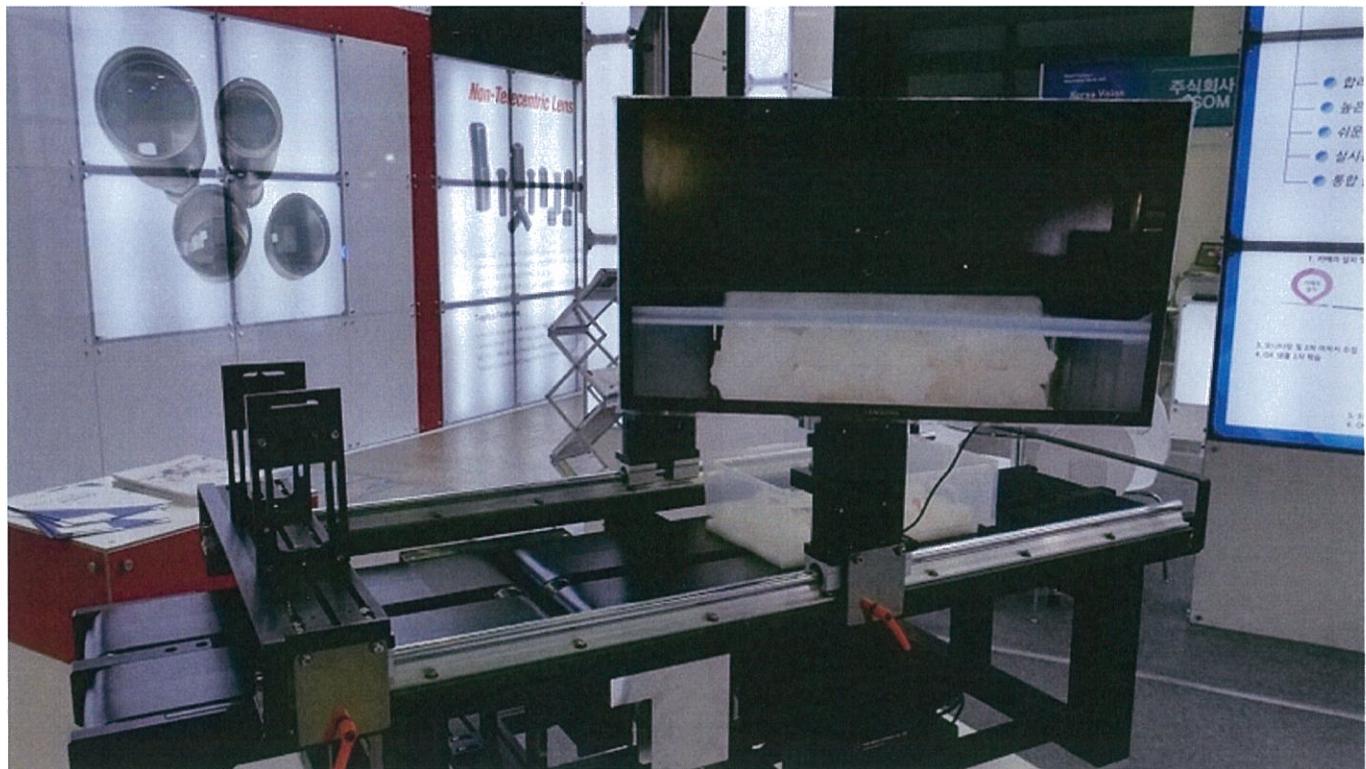
한맥콘트롤즈가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21(SmartFactory+AutomationWorld 2021)'에서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AI MECH'과 라인 스캔 디텍터 등의 머신비전 제품을 선보였다.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21은 9월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서울 코엑스 전관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 스마트공장 및 자동화산업 전문 전시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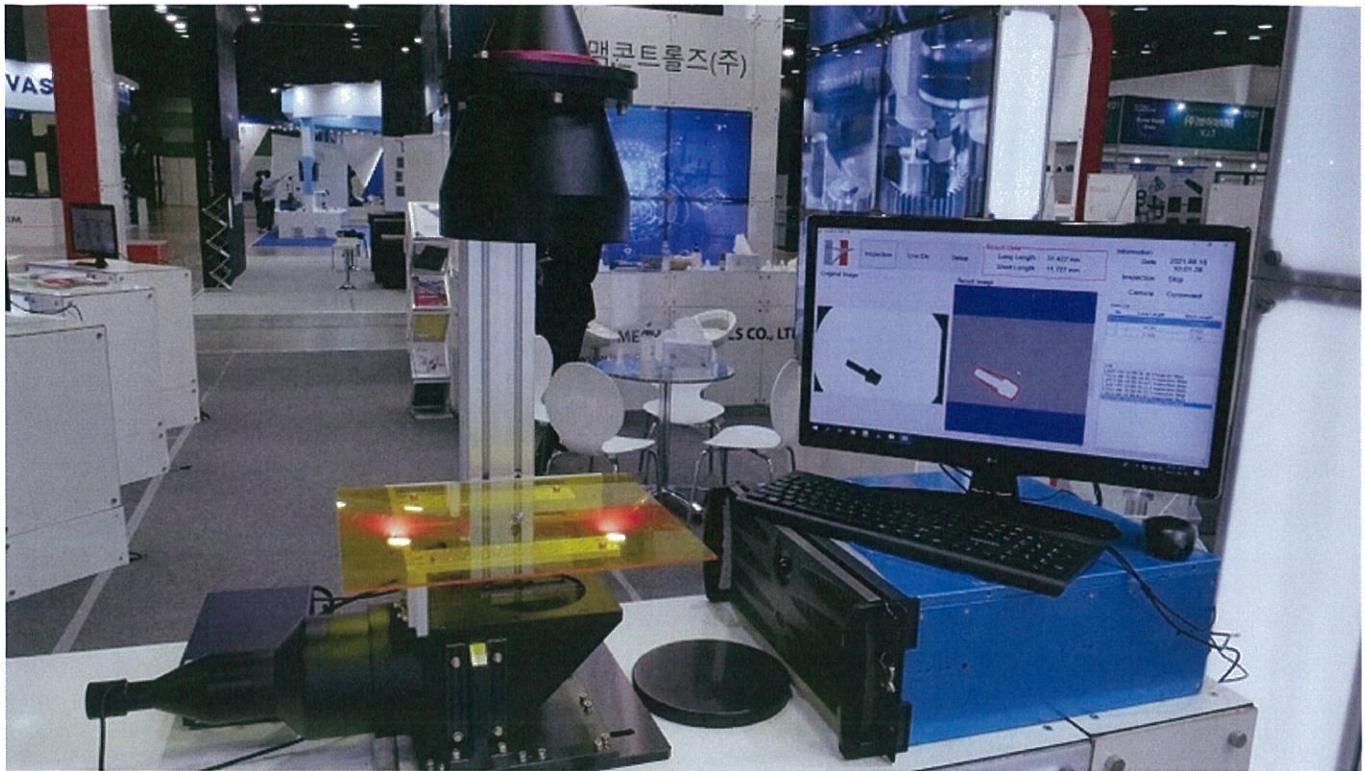
한맥콘트롤즈가 이번에 선보인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AI MECH'은 양불 판정이 모호했던 기존 검사 분야에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다. 저가형 웹캠을 활용해 임베디드PC

를 갖추고 좁은 설치공간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표면검사에 특화된 AI MECH은 시료 및 결함의 족잡도 정도에 관계없이 결함의 특징을 추출한다. 검출하고자 하는 항목이 정형화되지 않은 결함(비정형 결함)일지라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 학습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검사 환경에서도 높은 검사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다.



▲ 한맥콘트롤즈의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AI MECH' (출처: 헬로티)



▲ 한맥콘트롤즈 머신비전 제품 (출처: 헬로티)

이와 함께 한맥콘트롤즈는 고속 1차원 라인 패턴 디텍터도 선보였다. 검사별 다양한 렌즈와 조명이 선택이 가능하고 단순한 돌출 및 홀 검사는 물론 흐리는 쇳물의 굵기까지 측정할 수 있다. 패턴 및 누액 검사와 같이 까다로운 감사에 특화된 디텍터는 내장된 View 창으로 편리하게 검출 결과 확인도 가능하다.

한맥콘트롤즈는 산업용 자동제어기기 선도 업체로, 머신비전 하드웨어 구성부터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직접 설계하면서 거품을 제거한 합리적인 가격은 물론, 국내 본사 및 중국 지사에서 빠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

한편 첨단,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머신비전산업협회, 코엑스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디지털뉴딜의 미래(The Future of Digital New Deal)’라는 주제 하에 약 500개사 스마트 공장, 머신비전, 자동화 기업이 참가하여 1,800개 부스에서 최신 스마트 제조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산업단지특별관, 미래 스마트제조 주제관이 참관객들을 맞이하며, 2021 산업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를 비롯해 머신비전기술 세미나 등 200개 전문 컨퍼런스 세션이 마련되며, 글로벌 ESG포럼이 개최됐다.

